파산폐지 결정 받았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박 규 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파산폐지결정을 쉽게 말하면 파산절차가 종료됐다는 것이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당시 파산절차를 진행해 끝마친 사람이 그 이후 다시 채권, 채무관계를 맺으며 생활을 했다가 코로나로 생계에 위기가 닥쳐 다시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과연 파산신청은 무한정으로 허용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파산제도에 '재도의 파산신청'이란 게 있다. '재도의 파산신청'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파산신청과 함께 채무를 면하게 해달라는 면책신청을 하는데,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진행해야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항).

따라서 파산신청은 했지만 개인의 잘못으로 위 기간이 지날 때까지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해 재차 동일한 파산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법원은 '재도의 파산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을 했다는 외형적 경과만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파산신청의 원인이 동일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A씨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해 종국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다.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 자녀가 중증장애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돼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해 파산신청을 했다. 이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은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해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결정).

간단하게 말하면, 직전에 파산신청을 해 종료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채권, 채무관계가 생긴 상태에서 다시 파산을 신청하게 된 추가적인 경제사정 악화 등의 경위가 있다면 그 파산신청은 '재도의 파산신청'이 아니므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수시로 파산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하려고 시도했거나 충분히 소득을 발생시켜 채무의 상당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하는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한 경우, 재도의 파산신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을 기각한다.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경험이 있는 채무자가 다시금 도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부동산 시장 다시 얼어붙나?

기자 수첩
김 대 환
〈건설부동산부〉

정부가 지난달 5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얼어 붙은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리 인상, 공사비 상승, 분양시장 위축 등으로 신규 공동택지 발표에도 매수심리 회복과 집값 상승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등 총 5개 지구, 8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경기 구리토평2(1만8500가구)·오산세교3(3만1000가구)·용인이동(1만6000가구) 등 3개 지구에 6만5500가구를 선정했다. 비수권의 경우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곳에 1만45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해당 지역들의 집값은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 집값도 28주만에 상승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을 멈추고 보합(0.00%)을 나타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28주 만에 꺾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7일 기준)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7%)에 이어 0.03% 오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용인 처인구(0.09%→0.04%)도 상승폭이 줄었다. 오산시의 경우 0.02%에서 0.05% 상승에 그쳐 신규 택지 발표에 따른 집값 상승 영향은 크진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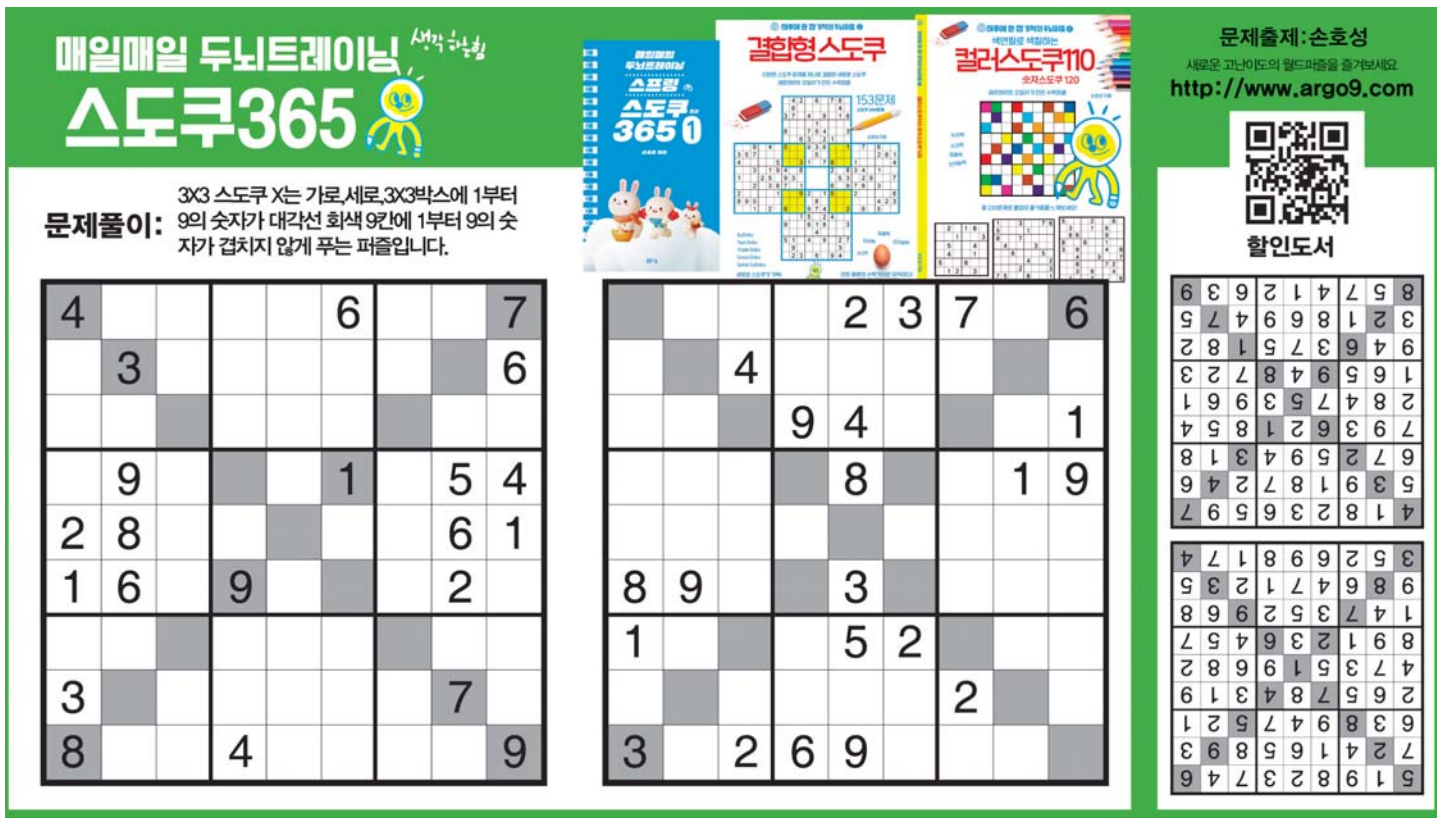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택지 완공 및 아파트 입주 초기 광역교통망이 먼저 개통되지 못하는 고질적인 교통망의 불편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산확보 및 교통망 개발시점 준수가 택지개발 시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집값 회복은 금리 하락, 경기회복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동산원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가라앉으면서 거래가 감소했으며,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매물이 누적되며 매도 희망가가 하락 조정됐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내년 서울 입주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요인의 단기 해결책으로는 제한적이다"라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및 유니콘팩토리 같은 민간 기업들의 입주의향 등 사전 조율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택지 성장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h@



오늘의 운세

12월 4일 (음 10월 2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마음의 평화는 바라보는 시선대로이다. **48년생** 좋은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처가 생긴다. **60년생** 3시 지나서 운전은 양보하면서 하자. **72년생** 힘찬 운이 도래했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84년생** 주변에 좀도둑을 조심해야.

37년생 가족이 흩어지기보다 기회를 찾아보자. **49년생** 무덤에서 잠을 자보는 마음으로 두려워 말고 경건히. **61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73년생** 가족 간에 서로 양보를. **85년생**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도록.

38년생 상부상조가 이익이다. **50년생** 배고픈 사람 앞에서 상대적으로 배부른 고민하지 말자. **62년생** 사람을 차별 질 수는 없으나 미운 것은 밉다. **74년생** 진로 수정은 신중히 해서 되돌아오는 민망함이 없도록. **86년생** 작정 기도를 신청.

39년생 남쪽에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다. **51년생** 선봉에 나서는 것은 시기를 받을 수 있으니 겸손히. **63년생** 노력은 복덕의 근간. **75년생** 동료와 화목해야 능률도 오름. **87년생** 재주를 믿고 교만한 직원이 선동할 것이니 거리 두기를.

40년생 집착이 결국 가족을 흩트리게 한다. **52년생** 먹물을 가까이하면 검어질 수밖에 없으니 도박조심. **64년생** 시작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하다. **76년생** 부부간 이기적인 마음을 접자. **88년생** 젊은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41년생 집수리가 늦어져 답답하나 서두르다가 무너진다. **53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른다. **65년생** 외출 때 차량 점검. **77년생** 친구의 연인에게 일시적인 감정 표출로 후회할 수 있으니 말조심. **89년생** 웃는 집에 복이 온다.

42년생 집안 풍습에는 액운을 막아주는 효험이 있다. **54년생** 먹을 복이 있으니 최상이다. **66년생**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은 것이 없다. **78년생** 취직으로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날. **90년생** 부모님께 세심하게 마음을 써서 존경을.

43년생 동네 모임에서 대우받기를 바라지 말고 상대의 말을 경청. **55년생**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는 격. **67년생**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 응원하라. **79년생** 휴가를 얻어 여행을 간다. **91년생**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할 때가 오니 평소 겸손.

44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56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 **68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투자를 경계. **80년생** 직장에서 상을 받으니 온 마음이 날아갈 듯 넉넉하다. **92년생** 본성 나쁜 직원의 도둑 수이니 내가 조심.

45년생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여 너무나 기쁘다. **57년생**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몰려올 때도 있다. **69년생** 부부간에 대화 중 의견대립이 생길 수. **81년생** 이사 준비로 바쁜데 이웃사촌이 방문하여 복잡. **93년생** 후천적 운세가 향상되니 희망적.

46년생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포장도 깨끗하게. **58년생** 세상살이 보는 눈을 조금만 달리해보면 축복이다. **70년생**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82년생** 이혼하라는 남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94년생** 미래 인생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47년생 매파 소식은 기다리던 것일수록 잘 살펴라. **59년생** 다른 사람에게 눈길 주지 말고 성실히. **71년생** 주어진 상황에서 즐거운 일을 찾자. **83년생** 두 마리 토기를 잡으려다 놓칠 수 있으니 신중. **95년생** 늦지 않았으니 실비보험을 들도록.

김상회의 四季

끼리끼리 인연

법구경 나오는 얘기다. 석가모니께서 어느 날 바라문족에게 설법을 하고 난 뒤 그들과 길을 걷게 되었다. 도중에 길 위에 어떤 종이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이자 부처님은 그 종이를 집어오라고 일렀다. 한 바라문이 종이를 집어오니 부처님은 그 종이가 어디에 쓰였던 것이었는지 묻자, 향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분명 향을 쌌던 종이임이 분명하다고 대답한다. 다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새끼줄이 떨어져 있었다. 부처님은 그 새끼줄을 집어오라고 하며 이 새끼줄은 어디에 쓰였었는지 알 수 있겠느냐고 바라문에게 물었다.

새끼줄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필시 생선을 묶는 데 쓰였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했다."인연은 이렇게 중요하다. 사물은 본래 깨끗한 것이지만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죄지을 인연을 만나면 죄를 짓게 되고 복 받을 인연을 만나면 복 받을 일을 하게 된다. 마음이 어질고 사리에 밝은 사람과 함께 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커지고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재앙 받을 일을 하게 되니 저 종이와 새끼줄처럼 향을 가까이하면 향기롭게 되고 생선을 싸게 되면 비린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조금씩 물들지만 결국 몸에 배어들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우리 속담에도"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있고 서양 속담에도"깃털들이 함께 뭉쳐 모인다."라는 유유상종을 뜻하는 속담이 있다. 좋은 인연은 분명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고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잘못된 인연은 물질적 손실은 물론 사람의 격 또한 하천 하게 만든다. 재물 적 이익 그 이상의 가치다. 최근 펜싱계 재원이었던 N씨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잘못된 인연을 맺은 탓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2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2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